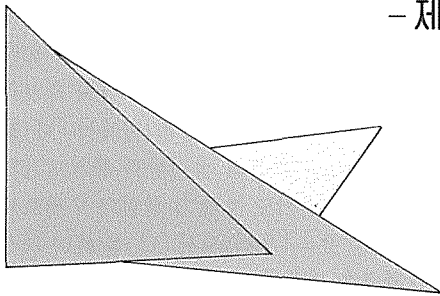


철학의 시각에서 본 환경문제

- 제도론적 재조명 -

송 영 배
(서울대 철학과 교수)

이 자료들은 지난 5월 17일 서울대 문화관에서 열린 한국자원경제학회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을 옮긴 것이다. <편집자註>



I

생산수단의 소유관계를 중심으로 어떤 사회체제가 과연(사회적 정의)를 보다 더 잘 구현시킬 것인가 하는 사회체제논쟁이 지나간 19세기 이래 우리 인류의 철학적 정치적 물음의 중심이 되어왔으며, 아직도 그 사상적 이념적 대립과 갈등은 우리에게 여전히 전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20세기의 마지막 문턱에 들어선 우리의 인류는 이제 폭발적인 생산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종래의 사회에서 체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문제점에 부닥치고 있다. 이미 인간의 기술능력은-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지구상의 모든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할 수도 파괴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이미 산업폐기물, 강력한 교통수단(비행기, 선박, 자동차 등)의 매연 및 생활폐수로 인한 공해나, 그리고 지난 체르노빌의 원전방사능유출사고 및 걸프전쟁에서 일어난 유전파괴와 해양오염 등등을 통하여 우리들이 직접 목격하였듯이, 전체지구의 기후변동 및 에너지 변환의 순환운동을 바꾸어 놓고 있는 것이다. 이제 지구의 자연환경을 파괴 변화시키는 인간의 영향력은 가공스러운 것이며, 거의 그 한계를 알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동시에 우리 인류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의 덕분으로 지구의 어디에나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인공위성을 지구 밖의 우주공간으로 쏘아대고, 달에까지도 갔다

“인간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이해의 진전에 따라 자연상태와 새롭게 관계를 맺으며 그 생활범위안에서 인간의 생각과 신념, 즉 철학적 세계관과 종교적 신앙들을 키워 나가는 것이다.”

“왔으며, 금성과 화성에 위성을 보내어 새로운 천문학적 사실들을 탐험하므로써, 이제 생활범위가 지구를 넘어서고, 또한 지구학과 천문학을 태양계 안에서 하나로 어우러지게 하였다. 이런 로케트의 추진력은 이제까지 인류가 살아왔으며 지금과 같은 자연적 속성을 가지게 했던 지구와는 다른 자연적 조건 하에서도 적응하며 살 수 있는 새로운 교통과 통신의 능력을 인류에게 열어주므로써, 우리 인간의 삶은 이제 새로운, <근원적인 전환>의 순간 앞에 와 있는 것이다. 사실 유전공학, 전자통신(컴퓨터공학) 등등의 엄청난 신속한 생산기술의 발전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형상을 점쳐보기 매우 힘들기 때문에 때로는 현란한 현기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일찌기 장자크루소는 그의 유명한 <사회계약론>(du Contrat social)에서 인간의 불평등의 기원을 사회적 노동분업이 발달된 문명사회의 출현에서 보았다. 그에 의하면, 사람들은 사회를 구성하기 이전의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서로 각기 고립하여 원시림 속에서 자급자족하게 삶을 영위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홍수, 산불 등의 자연재해 등에 의해 개개인의 고립된 삶의 영위가 위협을 받게 되면서부터 이 어려운 상황을 공동적으로 극복해야 할 필요에 따라, 소규모의 '공동체'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일단 공동체가 성립하자, 여러 경험과 기술이 집적되고 전수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연을 이용하는 현저한 생산기술의 진보가 나타났으며, 이들 자연인들은 점차 짐승을 순화시켜 유목을 하는(蠻人)(barbares)으로 발전해 나갔다고 본다. 이 야만적인 유목시대를 루소는 건전한 이상적인 사회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이 사회단계는 문명이전의 '동물과 비슷한' 자연상태도 아니며 '자신의 노동력을 남에게 팔아야 하는' 無產者와 '남의 노동력을 살 수 있는' 有產者들 사이의 불평등과 부자유가 존재하는 자본주의 문명사회의 병폐현상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루소에 의하면, 인간의 불평등과 부자유는 인간의 타고난 본래적 속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을 사회분업적으로 이용하여 생산해내는 인간들의 사회적 정치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밝혀 주었다. 이와같이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므로써 생겨나는 인간의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은 다음의 세 가지에 근거한다고 하겠다.

첫째는 생물적인 차원에서 '타고난 재능과 기질'의 차이, 둘째는 사유재산의 불평등한 소유와 분배, 그리고 끝으로 '사회적 노동분업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기능과 기술등을 발휘하면서 사회로부터 받게 되는 차등적 대우나 특권 등등으로 집약될 수 있겠다. 사실 사회생산력의 질적인 발전과 함께 교육이 보편화됨에 따라서, 생물적 차원에서 인간의 천부적 능력차이는 본질적인 문제가 못되는 것이며, 둘째의 불평등한 사적소유의 문제도 사회생산량의 증가로 인한 복지향상이 상대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그 침해한 심각성이 점차 둔화되어가고 있고, 또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형식상으로는 소유권에 의한 불평등은 해소되었다고 보겠다. 그러나 어느 사회체제에서든지 노동분업, 요컨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또는 '집행하는 노동'과 '지도하는 노동'의 사회적 분업에서 오는 사회적 불평등은 본질적인 심각

성을 더해간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 우리는 이제 자연력을 이용하는 기술의 발전과 경제의 성장이 과연(사회정의)를 실현해 줄 것인가하는 철학적인 문제제기를 해보지 않을 수 없다.

II.

그러나 우리는 먼저 다음과 같은 오늘의 현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사회정의의 실현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자본주의사회와 사회주의사회의 체제경쟁은 이제 새로운 과학이론을 발명해내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생산에 흡수 응용함으로써, 상대방 체제보다 우수한 생산력을 확보하는 능력의 경쟁으로 그 양상을 바꾸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어느 사회체제건, 자기가 갖지 못한, 상대방의 우수한 과학지식이나 생산수단에 의하여 포위당하고 말면 그체제의 존재근거(raison d'etre)는 상실되고 만다. 우리는 최근 東獨을 비롯한 동구사회주의 국가체제의 붕괴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中國의 개혁바람, 韓國의 동구권 및 소련과의 수교 등등을 이와같은 맥락과 연관지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제 한 사회체제의 가치, 또는 적합성과 효율성은, 우선적으로 그 사회에 실현된 평등과 정의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물리력을 이용할 수 있는 자연과학이론이나 생산기술의 사회적 역량, 즉 자연지배를 지배하는 '수단'으로서의 '지식의 총량'에 의하여 평가된다. 말하자면 사회정의의 실현은 부차적인 문제요, 요컨대, 인간의 이해관계를 살려내는데 과학적 성과를 효율적으로 응용하여, 마침내 최고의 노동생산성에 도달할 수 있는 사회체제가 승리한다는 말이다.

이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사회적 평등을 위하여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최고의 생산성에도 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인간들이 이제까지 수천년간 지속해온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분업적 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말하자면 노동분업에서 오는 사회적 불평등을 근원적으로 극복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노동'방식의 창출이라고 하겠다. 그것은-지배수단으로서의 지식으로부터 자연과 인간의 합목적적화합을 노리는 목적으로서의 기술에 이르는 '지식변혁'의 혁명적 도약을 의미하는-절

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과학이론과 기술능력의 창출이라고 하겠다.

인간의 역사란 사실 인간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세계 안에 살면서, 자신들의 생산도구와 노동을 통하여, 그 자연상태를 '인간의 요구에 적합하게' 개조하고 변형시켜온 변혁의 발자취일 뿐이다. 따라서 인간들이 집단을 이루고 생산을 하며 이루어 놓아온 사회구성체들의 변화와 발전의 역사는 다른아닌 인간이 자연을 개조해온 '자연의 인간역사'(die Menschliche Geschichte der Natur)인 것이다. 인간은



이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단순한 자연지배의 힘으로서의 도구적인 과학기술의 무분별한 추구가 아니라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자연과학과 기술의 윤리성의 회복, 또는 그것을 위한 철학적 자연과학적 계몽운동이라 하겠다.



자연과학의 개별분야의 발전으로 얻어진 자연의 질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어냄으로써, 자연의 물리력을 인간의 욕구충족에 이용하므로써, 인간의 '물리적-정신적' 속성을 계속 개선시켜나가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이와같은 인간의 대상세계에 대한 '이해능력'과 지식의 확대는 인간의 실천적 범위안에 나타나는 '인간의 자연'과 그 범위 밖의 '사물의 자연'(natura rerum)사이의 한계선을 더이상 분명하게 그을 수 없게 만들었다. 고대 그리스인에게 물은 陶工이나 습도 및 4원소 등으로, 17세기에는 물레방아나, 펌프 등 위치역학에 소용되는 것으로, 그러나 오늘날 핵물리학의 수준에서는 에너지 획득을 위한 '重水'로서의 의미를 강하게 띠는 것이다. 이와같이 물이라는 동일한 대상은 인간의 과학지식과 기술의 지평이 달라짐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이해되고 취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이해의 진전에 따라 자연상태와 새롭게 관계를 맺으며, 그 생활범위 안에서 인간의 생각과 신념, 즉 철학적 세계관과 종교적 신앙 등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인류는 이미 과거의 역사 속에서, 철기가 처음으로 농업생산에 투입됨으로써 얻어진 엄청난 물질

적-정신적 변화를, 그리고 근세에 들어와 지리학과 천문학적 지식의 발달로 천동설이 지동설에 의해 대체됨으로서의 철학적 세계관과 종교관의 엄청난 변화를 체험하였다. 이제 자연과학의 개별적인 전분야, 특히 전자두뇌(Kybernatik)의 급속한 발전과, 로봇에 의한 생산과 서비스산업 등등의 발전은 우리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환상적 행복과 동시에 엄청난 '불안'과 공포심을 갖게한다. 이러한 엄청난 발전은 과연 우리의 '정신적-도덕적'인 면에서 보다더 나은 품위있는 인간생활을 보장하는 것인가? 아니면 모든 정보와 최고의 두뇌를 가진 슈퍼 엘리트들이 생산수단을 점유한 대자본가들과 결탁하여 인간을 완전히 그들이 만든 도구들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아니가? 자연적대적이고 환경 파괴적인 도구적 기술은 인간과 자연의 생명력을 되살리는 합목적적 기술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인가? 이제〈사회적 정의〉는 어디에 그 지표를 두어야 할 것이며, 그것은 우수한 생산기술 앞에서 단순히 그의 '존재근거'를 상실하고 말아야 하는가? 여기에 자연과학이 추구하는 대상세계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생산성에 이용하는 '도구적 기술'은-우리 인간들이 적어도 타인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사회적 속성들을 포기할 수 없는 한-사회성에 바탕을 둔 '인간의 정신적-도덕적 가치'의 실현, 또는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는 '합목적적 기술'과 무관하게 더 이상 '방치되어질 수 없는 뚜렷한 이유'가 성립되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인간의 불평등을 제거하고 사회정의의 실현과 온전한 인격완성의 실현에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새로운 노동방식, 즉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사회적 분업의 궁극적인 지양을 가능하게 할 과학이론과 기술의 발전은, 물론 인류의 정치적 역량이-이윤추구를 중심으로 확대발전해가는 시장경제의 맹목적-경쟁체제를 어떻게 지도해나갈것이나하는 정치기술적인 문제에 필연적으로 귀결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제 요청되는 것은 단순한 자연지배의 힘으로서의 도구적인 과학기술의 무분별한 추구가 아니라,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자연과학과 기술의 윤리성의 회복, 또는 그것을 위한 철학적-자연과학적 계몽운동이라고 하겠다. ♣